

치솟는 물가...속타는 가계



달걀 67.9%



오징어 59%



닭고기 19.1%



수박 17.1%



도시가스 10.1%

소비자물가 광주 2.2%·전남 2.1% 상승...전국 평균 상회
농축수산물 3년래 최고...유가 전년비 8.9% 올라 상승 주도

“달걀, 돼지고기, 과일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으니 장보기가 무서워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높아지면서 주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물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고 닭,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수산물, 과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 물가가 뛰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져 가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에 이어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 매달 2%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도 전년 대비 반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8.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렸다.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체 2.2% 상승했는데 소비자들이 즐겨 구입하는 농축수산물은 무려 7.6%나 상승했고, 공업제품 1.8%, 서비스 2.0% 상승했다. 광주



의 생활물가지수는 3.1%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도 무려 7.1%의 상승폭을 보였다.

전남지역도 전체 소비자물가는 2.1% 상승했고, 농축수산물 5.2%, 공업제품 1.9%, 서비스 2.3%의 상승을 기록했다.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2.7%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도 4.0% 올랐다.

전국의 농·축·수산물도 6.2% 올라 전체 물가를 0.48%포인트 상승시켰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8.5%) 이후 가장 컸다.

이중 축산물 물가는 11.6% 올라 2014년 6월(12.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달걀은 67.9%, 닭고기는 19.1%, 돼지고기는 12.2% 올랐다. 수산물도 전년 대비 7.9% 올라 농·축·수산물 물가를 끌어올렸다.

또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는 2.5% 올랐고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채소, 과일, 어패류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5.6% 뛰었다. 신선과실 물가는 19.7% 올라 2011년 4월(20.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오징어(59.0%), 수박(17.1%), 포도(10.9%)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석유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도시가스도 10.1% 올랐다. 외식 메뉴 중에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BBQ의 가격 인상으로 치킨값이 전년 동월 대비 1.6% 올랐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축산물, 수산물 가격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됐다”며 “치킨값의 경우 BBQ가 프랜차이즈 중에선 가장 큰 업체이지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인상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연남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44.61 (-2.77)
-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 ↑ 코스닥 653.83 (+1.79)
- ↑ 환율 (USD) 1122.00원 (+2.50)



광주농협 농가 소득 증대 전략 회의

경영비 절감 등 5000만원 조기 달성 22개 과제 추진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박태선 본부장 주재로 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광주 지역 14개 지역농협 농가소득 증대업무 책임자(전·상무) 등 관련직원 30여명이 참석해 '농가소득 5000만원 조기달성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추진전략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광주광역시 14개 지역농협은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업 소개와 향후 중점 추진할 사업을 소개한 뒤 토론회를 결속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농가소득 5000만원 조기달성을 위해 농협의 사업역량을 결집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수취 가격 제고 ▲농업경영비 절감 ▲농식품 부가가치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간접지원 의 6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자체 발굴한 22개 중점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광주본부는 ▲농촌활력화를 위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추진 ▲도시민농촌체험활동 증대 ▲적기영농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증가사업 전개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농촌일손돕기전개 ▲맞춤형현장 영농교육 ▲농업인법률구조사업 ▲농업인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비 적과 재배 확대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박 태선 본부장은 “지역농협별로 추진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전략과 아이디어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가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범농협의 역량의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34곳 적발

광주·전남중기청 100개사 조사 1억4700만원 시정조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광주·전남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곳을 적발해 1억4700만원의 위반금액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물품대금 미지급 1곳(2200만원), 물품대금 지급이 60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 29곳(7100만원), 어음 할인료 미지급 15곳(5400만원)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방문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상담과 신고 편의를 위해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들이 보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 익명제보센터 운영?무작위 실태조사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효성 '한-아세안 산업현장 사진 공모' 장관상

효성은 1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산업현장 사진 공모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세안과의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그 간의 무역·투자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경제·문화 협력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는 FTA 발효 10주년인 동시에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면서 아세안 출범 50주년이기도 하다.

부대 행사로 진행된 산업 현장 사진전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한국과 아세안 기업의 사진이 전시됐다. 효성은 해외

의료 봉사단 '미소원정대'가 2015년 베트남 현지 푸옥티엔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효성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 지난해 베트남 현지에 유치원을 신축하고 있는 사진 역시 다섯 개의 우수작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효성은 지난 2007년 베트남 동나이성 년짜 공단에 스파텍스와 타이어코드 등을 생산하는 베트남법인을 설립해 2009년부터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또 2011년부터 의료봉사단인 미소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사진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효성 '미소원정대'의 베트남 활동 사진. (효성 제공)

한국광기술원, 14일 光기술 심포지엄

27일 일산 4차산업혁명 토론회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이 광(光) 기반 기술관련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한국광기술원은 미래 광 기반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광역의료 심포지엄'과 '광융·복합 신산업 발전전략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광의료 심포지엄은 오는 14일 한국광기술원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광의료 관련 산학연·병원 관계자가 참여해 '광기반 미래 의료기술의 산업화 동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포도닉스케어 신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대성기자bigkim@

신보호남본부-전남도중기지원센터 협약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전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1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0.2% 포인트 차감해준다. 보증비율은 3년간 90%로 우대 적용한다. 또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경영전략, 마케팅, 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정양수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지역 내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추천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층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층 743㎡ |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